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97-408  
<https://doi.org/10.29212/mh.2018..109.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 김영옥이 미래의 대한민국 영웅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Colonel Young Oak Kim's Message to Korea's Future Heros

한우성 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북스토리, 2014)

이무형\*

본고는 북스토리에서 2014년에 발간한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전쟁영웅, 리더, 인도주의자라는 3가지 관점에서 책의 주인공인 김영옥을 평가하면서 이 책이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였고, 과거의 인물인 김영옥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이 책의 의미와 교훈을 되짚어 보았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전투지휘로 미군에서 각종 훈장을 받으며,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

\* 육군사관학교 영어과 조교수

장 많은 훈장을 받은 아시아계 미군으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한국인 김영옥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에 묘사되어 있는 그의 일화들은 경이로움을 넘어 실로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중 김영옥의 전투지휘는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상관, 동료, 부하들이 “김영옥과 함께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믿을 정도로 뛰어났다. 전쟁 이후 김영옥은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사명감과 열정 이상을 보여주었다. 전쟁이 끝난 사회에도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약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던 김영옥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김영옥의 업적은 한국 전쟁 당시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전쟁고아들이 전후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기반이 되게 했다. 그리고 김영옥의 이름을 딴 미국의 해외동포연구소와 중학교에서는 아직도 불세출의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김영옥의 삶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한국군 장병들도 불패신화의 주인공인 김영옥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다. 이 책은 김영옥의 출생부터 제2차 세계 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그의 삶까지 풍부한 사진 자료들과 생생한 장면묘사들을 곁들여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행동을 옆에서 보고 있는 듯한 시각적인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김영옥의 업적과 그의 리더십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그의 성격 그리고 가치관까지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1. 미래의 영웅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웅 만들기를 참 좋아한다. 교환학생으로 美 육군사관학교에서 위탁생도로 유학생생활을 하게 된 나에게 미국은 어디를 가든 영웅들의 동상, 기념비, 상징물들로 꽉 찬 커다란 박물관 같았다. 특히 4년간의 웨스트포인트 생도생활은 조지 워싱턴, 맥아더, 아이젠하워 등 쟁쟁한 전쟁영웅들과 마치 동기생처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만들었다. 내가 처음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 역시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당시 나는 김영옥을 그저 이민자의 아들로서 한국계 미군 중 한명으로 전투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나보다 하는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러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았다.

그 이후 육사를 졸업하고, 두 번째로 내가 김영옥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양평의 한 기계화보병사단에서 중대장으로 근무 중, 지평리 일대로 훈련을 나갔을 때였다. 때마침 프랑스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지평리 전적지 답사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덕분에 백발이 성성한 프랑스의 노장들과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UN군의 일부로 한국전쟁에 파견을 왔던 경험과 함께 반세기만에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었다. 그런 그가 나에게 김영옥을 알고 있는지 물어왔다. 하지만 나의 얕은 전쟁사 지식으로 인해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자 그 노장은 김영옥이 제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동북부의 비퐁텐 마을에서 독일군과 싸웠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프랑스인들은 그의 업적에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대장으로 활약하던 김영

옥의 나이는 불과 20대 중후반. 나 역시 비슷한 나이에 중대장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기에 이렇게 먼 타지에서 온 프랑스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궁금해졌다. 도대체 김영옥은 어떤 사람이기에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한국에서 보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영웅으로 더욱 추앙받고 있으며, 특히 미군에서는 자유의 메달(Medal of Freedom)이라는 훈장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아시아계 미군으로 남게 되었을까. 그가 가진 남다른 능력, 인성,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궁금하던 시기에 나는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손에 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고 나니, 김영옥이라는 인물을 크게 3가지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김영옥,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영웅이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 그리고 사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인도주의자였다. 내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내가 지도하고 있는 미래의 리더인 육사 생도들에게 소개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많은 한국군 장병들에게 알려서 언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 보았다.

## 2. 위국헌신의 진정한 전쟁영웅(War Hero)

책을 통해 본 김영옥이 남긴 군인으로서의 영웅적인 업적은 너무나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해방의 주역이자 피사 해방의 장본인으로 연합군 최초로 피사의 사탑 꼭대

기까지 올라갔었다. 프랑스의 브뤼에르 전투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적군의 생명 또한 아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에서는 김영옥의 불패 신화의 힘으로 말미암아 38선 이남에 형성돼 있던 중부전선을 60km나 북상시켰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 군사고문으로 활동하며,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해 한국방어계획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한 사건이 바로 이탈리아 안지오(Angio)에서의 포로 생포 일화이다.

1943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무렵, 이탈리아의 안지오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한 후에 연합군과 독일군은 팽팽한 대치를 계속 하고 있었다. 양측은 ‘주인없는 땅(No-man's land)’이라 부르던 사이의 공간지를 두고 지루한 소모전을 이어갔다. 총탄이 빗발치는 이곳에서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적으로 간주되고, 움직이는 어떤 물체도 예외 없이 양측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맞아야 했다. 당시 연합군에게는 독일군이 북이탈리아에 불러들인 탱크사단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업이었다. 탱크사단에 위치에 따라서 연합군 주공의 공격방향과 작전의 성공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도 이 위험한 ‘주인없는 땅’을 가로질러 적진으로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였는가! 이토록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김영옥은 기지를 발휘하여 전쟁영웅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게 된다.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도 들어갈 수도 없는 ‘주인없는 땅’으로 김영옥은 투입되기를 자원하였다. 자신의 뛰어난 지형분석 능력으로 적진으로의 침투로를 찾아내고, 적들의 행동을 며칠간 면밀히 관찰하여 침투시간을 판단하였다. 단 한명의 부하

만을 데리고 가장 취약한 시간에 침투하여, 지뢰지대를 헤치고 적진 한가운데서 2명의 독일군 포로를 잡아 기적적으로 복귀하였다. 김영옥이 잡아온 포로를 통해 얻은 정보로 연합군은 성공적인 작전을 완수할 수 있었으며, 김영옥은 이 공을 인정받아 미군에서 특별무공훈장,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동성무공훈장을 받게 된다.

나는 상상해 보았다. 이십대 후반의 김영옥은 미국에 남겨진 가족과 살고자 하는 열의를 뒤로하고, 어떻게 생사를 넘나드는 사지로 뛰어들 수 있었는지. 그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그리고 그 나이에 나였더라면 과연 김영옥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지. 이 책을 통해 나는 잠시나마 김영옥과 같은 상황에 처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전쟁 경험이 없는 나에게 그 고민자체가 값진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 3.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리더(Leader)

김영옥이 태어난 시대는 김영옥에게 참으로 가혹한 시기였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세 가지의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첫 번째는 양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군과 독일군이라는 적과의 싸움. 두 번째로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갖고 있는 의심과 편견에 대한 싸움. 세 번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한국인에게 쏟아지는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셋 중 하나의 싸움에만 휘말리더

라도, 숨 막힐 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탓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김영옥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 이민자의 아들이자, 나라를 잃은 한국인의 자손이자, 미군에 복무하며 전쟁에서 싸우는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지혜롭게 헤쳐 나갔다.

독립운동가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아이들과는 놀지도 말고 일본 음식은 먹지도 말라고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김영옥이 100대 대라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이루어진 부대에 배치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훗날 유색인종으로서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전역에서 100대대 지휘관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김영옥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소위로 임관한 그가 처음으로 100대대에 갔을 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김영옥을 처음 본 상급자는 대뜸 그에게 “김 소위는 한국계가 아닌가. 뭔가 착오가 있는 듯하다. 한국계와 일본계는 양속 아닌가. 그러니 다른 부대로 가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 상급자는 일본과 한국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영옥이 100대대에서 지휘를 맡는 것인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김영옥은 그러한 상급자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미국인이며, 그들도 미국인입니다. 우리 모두 미국 시민이며 같은 목적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 상급자는 만약 일본계 미국인 부하들이 김영옥을 받아들인다면 임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다는 조건을 걸었다.

한국계인 김영옥이 일본계 부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부하들과 자신은 동등하다는 겸손함과 부하들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전우애였다.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일화가 독일 치우사노에서 일어난 명령불복종 사건이다. 길을 따라 소대를 전진시키라는 중대장, 대대장, 군의관

의 명령과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영옥은 적의 명백한 위협에 자신의 소대원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다고 말하며 상대적으로 위협이 적은 계곡 쪽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자들은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김영옥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상관의 의도대로 지시를 수명하였다. 이 일화는 관점에 따라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김영옥의 모습이 상명하복의 바람직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영옥의 주장은 언제나 자신의 안위나 단편적인 지식에 의지한 아집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군사적 지식과 논리적인 상황판단에 입각한 합리적인 주장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위협을 무릅쓰고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이행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하들은 김영옥을 그냥 보통의 한국계 장교가 아닌 진정한 자신들의 리더로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나 역시 美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에서 위탁교육 프로그램으로 4년을 보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지만 인종간에 벽이 존재하였다. 특히 유학 1년차에 영어가 잘 들리지도 않고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을 때였다. 일부 미국 백인들은 차별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그들의 시선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였던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찾아 올 때마다 대한민국 국가 대표라는 생각과 한국인이라는 민족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에게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을 이겨낼 용기를 샘솟게 했다. 이런 나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 김영옥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미치기 시작했다. 모든 부하가 자신의 모국을 알잡아 보는 일본계이고, 모든 상급자들은 자



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백인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면. 김영옥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한국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누구나 과병이나 위탁교육을 갈 기회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용사들에게는 전역 후 유학이나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길 것이다. 누구나 타지 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김영옥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힘든 상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다. 자신의 상황을 타하며 운명에 굴복하기 보다는, 겸손함과 전우애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일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

#### 4. 끝없는 열정의 인도주의자(Humanitarian)

전쟁은 많은 영웅들을 낳는다. 하지만 김영옥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영웅 중의 한명으로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그의 업적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역 후 다양한 활동들을 활발히 이어나갔다. 그의 이러한 인도주의적 행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서도 김영옥은 주변에 보이는 전쟁고아들, 민간인 여성이나 포로로 잡힌 여군들을 보호하는데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전쟁 중에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옥은 이러한 일들이 군의 작전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여, 민군(民軍)이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그야말로 민군작전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 중 일례가 바로 한국전쟁 당시 대대장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1대대가 경천애인사에 500여명의 전쟁고아를 돌보도록 한 것이다. 김영옥은 전투부대에 과도하게 보급되는 맥주를 적정량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지원금으로 전환시켰으며, 부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지원물품을 받아 경천애인사에 기부하였다. 하지만 그의 창의적인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아원에 지원금과 지원물품 전달에서 장교들을 제외시키고, 모범 용사들이 며칠씩 외박과 함께 경천애인사를 다녀오는 특전을 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전쟁고아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지만 장병들의 정서순화에도 도움이 됐다. 한국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고아원을 돕는다는 사실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는 딱딱한 정훈교육보다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김영옥의 대대는 사기가 높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천애인사와 1대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김영옥은 많은 전우들을 잃었다. 그리고 전우들이 떠난 자리에 쓸쓸히 남겨진 김영옥은 ‘만일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내가 속한 사회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전역 후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김영옥은 재미한인사회를 위해서 한인건강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육성하여 저소득층 이민 1세대와 노인들, 18세 이상 장애인이나 병약자들에게 건강정보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재미일본인사회를 위해서는 일본계 미군 장병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회 회장을 맡아 그들의 권익을 옹호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계 가정폭력 피

해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소도 발전시켰다. 김영옥은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전사한 그의 전우들 앞에서 했던 그의 결심을 죽는 날까지 지켜나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영토는 과거의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유와 평화를 만들어 준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김영옥이 전장에서 했던 그 결심을 전역 후에도 실천하며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전역을 하고 사회로 진출할 모든 장병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두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리라 확신한다.

## 5.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영옥이 던지는 질문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이라는 책을 읽으며, 나는 김영옥과 함께 독일 안지오의 ‘주인없는 땅’에서 숨죽이고 포복했으며, 프랑스 비퐁텐에서 상식에 벗어난 사단장의 명령에 분노도 하고, 오른손에 총상을 입은 채 탈출했으며, 한국에서는 부모 잃은 고아들을 보며 함께 가슴아파했다. 작가의 너무나도 생생한 묘사와 스토리텔링 기술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 전장을 누비며, 편견과 싸우고, 약자를 돌본 김영옥의 일대기를 통해 나는 그를 “위국헌신의 진정

한 전쟁영웅(War Hero), 김영옥!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한 리더(Leader), 김영옥! 끝없는 열정의 인도주의자(Humanitarian), 김영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김영옥은 안지오 전투에서 보았듯이, 임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용기를 갖추었다. 그러한 위국헌신의 용기는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고결한 가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영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편견에 맞서 싸우며, 부하의 목숨을 자신의 목숨보다 우선하는 헌신과 존중의 가치를 통해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정의와 봉사의 신념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전해준다. 이러한 영웅 김영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던져주는 다음 세 가지 물음에 스스로 답해보라고 하고 싶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위기에 처했다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운명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 땅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